

## 제 29 장

### 다문화주의이론

#### 학습목표

1. 다문화주의이론의 사회관과 기본 가정을 이해한다.
2. 다문화주의이론의 주요 개념을 이해한다.
3. 다문화주의이론의 사회변동과 발전에 대한 관점을 이해한다.
4. 다문화주의이론을 사회복지실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이해한다.

Ludwig Gumplowicz  
(1838-1909)



오랜 역사 속에서 외세(外勢)의 침입과 억압을 경험한 한국인들은 한민족으로 구성된 국가 즉, 단일민족국가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으며, 다른 문화에 대해 오해를 하거나 배타적 태도를 보였었다. 하지만 근대화, 서구화, 세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국내에 체류하거나 정주(定住)하는 외국인의 수가 증가하면서, 한국사회는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게 되고, 문화적 다양성

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최옥채 외, 2020).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수는 2015년 171만여명에서 2019년 205만여명으로 증가하여, 전체 인구의 4%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행정안전부, 2020). 이와 같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증가하는 현상은 국적을 취득하거나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과 자녀, 결혼이민자, 외국

국적 동포,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기업 종사자, 외국인 유학생, 북한이탈주민, 난민 등의 증가에 그 원인이 있다. 그 외에 다양한 유형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려하면 국내에 정주하거나 체류하는 외국인은 수와 비율은 더 높아질 것이다.

국내에 장기체류하거나 정주하는 외국인의 증가와 함께 외국인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이를 사회 문제로 인식하여 해결하려는 시도도 증가하고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경험하는 문제는 ① 한국 국적 취득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중대한 기본권 침해나 인권유린을 당하는 문제, ② 사회관계 형성의 어려움, 문화적 갈등 또는 문화억압, 지역 문화에 대한 대응능력의 한계와 같은 사회문화적 적응 문제, ③ 인종 및 문화차별,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과 왜곡 등의 사회통합의 문제, ④ 빈곤이나 자녀교육의 문제 등이다(최명민 외, 2015).

이와 같이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문화와의 접촉이 증가하고 국민들의 생활양식이나 문화의식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외국인이 경험하는 사회문제들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증가하게 됨으로써 우리 사회는 본격적으로 다민족·다문화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다(최명민 외, 2015). 그리고 외국인의 지위와 처우 개선하고, 문화 및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 및 지방정부, 사회복지기관을 포함한 비영리·비정부 조직에서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구의 다문화주의는 1960년대 시민권 운동을 기점으로 시작되었으며, 1970년대부터 다인종국가에서 핵심적인 사회적 이슈가 되었으며, 1980년대 후반 동서간의 냉전체제가 붕괴된 이후 더욱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로 등장하게 되었다(최옥채 외, 2020).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진정한 다문화사회로 진입하였는지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고, 다문화사

Horace Meyer Kallen  
(1882-1974)



회에 대한 치열한 고민 없이 너무 쉽게 다문화주의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다문화사회복지사업이 일방적이고 시혜적 관점에서 실시되고 있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그러므로 다문화시대에 활동해야 하는 사회복지사에게 있어서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다문화사회의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과 이론의 학습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1. 사회관과 기본 가정

### 1) 인간과 사회에 대한 관점

사회와 문화는 밀접한 상호관계를 맺고 있다. 사회는 문화를 창출하지만 문화는 사회의 변화를 요구하기도 하며, 그 역의 관계도 성립된다. 이처럼 가치, 신념, 상징, 이념, 생활양식 등의 문화는 사회의 형성, 유지, 안정과 변동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이다. 따라서 다문화주의이론에서는 문화와의 상호연관성을 바탕으로 하여 사회를 이해하고자 한다.

어떤 사회든 하나의 사회 속에는 다양한 문화가 존재한다. 세계화로 인하여 국제사회에서 상호의존성이 증가하고 문화적 접촉이 활발해짐에 따라 세계가 하나의 체계로 전환되어 감에 따라 하나의 사회 속에

다양한 문화가 혼재하게 되게 되었다. 이러한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서구 강대국의 문화를 중심으로 획일화되어 가기도 하지만, 오히려 뿌리 깊은 문화적 전통을 이어가는 다양한 문화가 서로 충돌, 변용, 적응해 가기도 한다.

다문화주의이론에서는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사회통합을 지향하며, 그 문화의 시각에서 평가해야 한다는 문화상대주의를 지지한다. 다문화주의는 한 사회에 여러 문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문화상대주의는 서로 독특한 문화를 교차해서 인정하자는 것이다. 어느 문화든 가치가 있고 정당하기 때문에 문화는 비교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우열을 가려서는 안된다고 본다. 따라서 서로 다른 문화적 전통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상호 존중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이에 다문화주의에서는 다양한 문화를 지닌 소수자들의 삶을 보장하는데 초점을 둔다. 하지만 다문화주의에서는 소수자집단을 보호하고 지지하는데 최종 목표를 두지 않으며, 중국에는 온전한 사회통합을 촉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다문화주의이론에서는 사회 내에 문화에 따른 사회적 차별, 배제, 억압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민족중심적 단일문화주의를 신봉하는 경우에는 다른 문화를 배제하고 그 문화적 특질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 자신의 문화를 강요하기도 하고, 차별과 억압적 행동을 취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 인종과 민족, 성별과 성적 취향, 장애여부, 계층 등에 의한 왜곡적 시각과 물이해로 인하여 문화적 차별에 더하여 이중적 차별과 사회적 배제를 행하는 경우도 실존하고 있다.

다문화주의이론은 인간에 대한 문화결정론적 시각을 내포하고 있다. 문화결정론은 개인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개인이 소속한

외부의 체계에 의한 것으로 보는 관점이다. 사회성원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각 개인에게서는 찾을 수 없는 집단적 감정, 가치, 신념, 풍습, 제도 등의 문화가 발생한다. 하나의 통합된 체계로서의 문화는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면서 개인의 행동을 유발, 촉진, 제한을 가하므로, 인간의 행동은 문화적 배경에 의하여 결정된다.

다문화주의이론에서는 인간의 독특성, 유사성과 차이성 그리고 보편성을 동시에 인정한다(Sue, 2010). 미시적 차원에서 보면, 모든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유일무이한 존재이며, 삶의 과정에서 서로 다른 경험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르다. 중간적 차원에서 보면 인간은 공통의 신념, 가치, 규칙을 가진 문화 속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유사성을 지니지만, 동시에 교육, 거주지역, 결혼 등의 개인적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어떤 측면은 같고, 어떤 측면은 다른 특성을 지니게 된다. 거시적 차원에서 보면, 모든 인간은 다른 모든 사람과 같다. 즉, 모든 개인이 인류의 한 구성원이고 호모사피엔스(homo sapiens)라는 종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다문화주의이론에서는 인간을 어떤 수준에서 이해하는가에 따라 독특한 존재,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존재, 서로 닮은 존재로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다문화주의이론에서는 평등과 인간존중의 가치를 선호한다. 다문화주의이론에서는 개인의 신념, 가치, 행동은 특정 문화의 기준에 입각하여 판단하여 우열을 가리고 차별과 배제, 억압하기 보다는, 그 개인이 속한 문화에 기반하여 이해되어야 하고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라고 본다. 즉, 개인은 사회화 과정에서 자신이 속한 문화의 영향으로 형성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속한 문화적 영향력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특정 문화의 관점에서 그의 신념, 가치, 행동이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쁘

다고 평가해서는 안되며, 모든 인간이 평등하고 존중받을 권리를 지닌 존재로 인식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 2) 기본 가정

다문화주의이론은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여 서로 다른 문화를 수용하고 새로운 사회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하는 다문화주의의 가치와 이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론이다. 이러한 다문화주의이론의 기본가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Bennett, 2009; Sue, 2010; 이철우, 2017a; 최명민 외, 2015; 최옥채 외, 2020).

### < 표 29-1 > 다문화주의이론의 기본가정

- 문화는 사회적 산물이며, 사회를 형성, 유지, 변화시키는 핵심 기제이다.
- 문화는 사회성원의 사고, 감정, 행동을 결정하며, 개인의 생활양식을 결정한다.
- 문화는 정체된 것이 아니라 역동적 변용이 이루어지는 살아 움직이는 체계이다.
- 모든 문화는 사회환경적 배경과 구성원의 삶의 집합체이므로, 보편적이면서 다양하며, 옳고 그르거나 좋고 나쁜 것이 없으며, 모두 있는 그대로 존중받아야 한다.
- 문화는 사회성원의 생활을 설계하고 촉진하고 통제한다.
- 기술문명의 발전과 국제적 교류가 확대되어 감에 따라, 문화간의 접촉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문화적 확산과 차용의 과정이 활발해지고 문화변용이 촉진되고 있다.
- 문화변용과 문화적응의 과정에서 사회성원은 적응 또는 부적응을 경험할 수 있다.
- 다문화사회에서는 문화간의 상호존중과 사회통합의 가치를 중시하지만, 현실 사회에서는 문화에 따른 차별과 배제, 억압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다문화사회에서는 인종과 민족문화뿐 아니라 연령, 성별 및 성적 지향성, 장애 여부, 거주지역, 계층 등의 소수자집단 문화로 인한 이중적 차별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인간은 문화적 존재로서, 개인의 가치, 신념, 생활양식 등 삶 전반에 걸쳐 문화의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 개인은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사회적 차별과 배제, 억압을 당해서는 안되며, 인간이 갖는 모든 권리를 향유할 자격을 갖는다.
- 개인을 원조함에 있어서는 문화에 따라 범주화하여 처우할 것이 아니라, 개인의 특성, 욕구에 따라 개별화된 처우를 해야 한다.

## 2. 주요개념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는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여 서로 다른 문화를 수용하고 새로운 사회공동체 형성과 관련된 가치, 철학, 이론, 사회운동을 이르는 용어(최옥채 외, 2020)이다. 이러한 다문화주의는 지역, 성별과 연령, 성적 취향, 장애 여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와 수용에 관한 내용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민족과 인종을 기준으로 논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최명민 외, 2009), 이에 다음에서는 인종과 민족을 중심으로 다문화주의를 논의하고자 하며, 다문화주의의 주요 개념과 이론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이주, 이주민 그리고 소수자집단

이주(immigration)은 개인 또는 집단이 지리적으로 이동하여 체류, 정주하는 현상으로, 국내 이주와 국제이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이주 당사자의 이주 의사의 자발성에 따라 자발적 이주와 비자발적 이주로 구분할 수 있다. 자발적 이주는 당사자가 직업, 생활, 교육 등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이주하는 것이다. 비자발적 이주는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불가피한 여건 때문에 국내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나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이주의 기간이 영구적이나 일시적이나에 따라서도 이주의 유형을 구분한다. 국제 이주를 기준으로 할 때, 자발적이고 영구적인 이주민으로는 이민자가 있으며, 자발적이고 일시적 이주자로는 체류자가 있다. 비자발적이고 영구적 이주민으로는 난민이 있고, 비자발적이고 일시적 이주민으로는 정치적 망명자가 대표적이다.

이주의 이유는 이주민의 본국과 이주하려는 국가가 밀어내는 힘 즉, 배출요인과 끌어들이는 힘 즉, 흡인요인으로 나뉘어서 살펴볼 수 있다(최명민 외, 2009). 자발적 이주민인 이민자, 유학생, 외국인 노동자 등에게 있어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서의 경제적 어려움, 교육의 구조적 문제, 외국에서의 삶에 대한 동경 등이 이주의 배출요인이다. 이주하려는 국가의 임금 수준, 노동시장 참여기회, 양호한 사회보장 및 교육제도, 개인의 경제적 발전 가능성 등이 흡인요인이 될 수 있다. 비자발적 이주민인 난민, 북한이탈주민 등에게 있어서 배출요인은 전쟁으로 인한 피해, 정치적 박해, 식량난 등으로 인한 생명의 위협 등이며, 흡인요인은 인접 국가로의 탈출가능성, 수용국의 정치적 성향과 우호적 태도, 난민 판정 절차와 과정 등이 있다.

이주의 독특한 형태로 연쇄이동이 있다. 연쇄이동이란 기존 이민자들로부터 교통편이나 거주, 취업에 관한 도움을 받는 예비 이민자들이 연쇄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연쇄이동과정에서 도움을 주고받은 사람들 사이에는 신뢰, 소통 등의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며, 기존 이주민 거주지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착지를 형성하게 됨으로써, 자신들이 가진 기존의 문화를 바탕으로 생활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예를 들어, 서울 대림동지역의 차이나타운 등과 같이 중국, 베트남 등에서 이주한 사



람들이 특정지역에 함께 거주하고 교류하면서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유지해 나간다.

어떤 이유 그리고 어떤 유형의 이주민이든 한 사회의 소수자집단이 된다. 물론 소수자집단이란 특정 사회 안에서 문화, 민족, 인종적으로 구별되는 특수집단으로서, 신체 및 정신장애인,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 등의 외국인,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시설생활인, 노숙자, 성적 소수자, 북한이탈주민,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이 속한다. 모든 소수자 집단과 마찬가지로, 이주민은 수적으로도 소수일뿐 아니라 권력관계에서도 약자로서 사회적 왜곡, 차별, 배제, 억압 등의 집단적 차별을 경험하는 대표적인 집단이다. 그러므로 소수자집단으로서의 이주민은 주류 사회와 문화의 구성원에 의해 차별받는 사회적 약자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2) 문화접촉, 변용 및 적응

한 사회의 문화는 나름의 정체성, 독자성, 독창성을 지니며 문화적 전통을 가질 수 있지만,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문화는 변화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문화변용은 내적 변동과 외적 변동으로 나눌 수 있다(이철우, 2017a). 내적 변용은 주로 발견이나 발명에 의해 일어난 인간의 생활양식의 변화를 말한다. 외적 변용은 이웃이나 다른 사회와 접촉함으로써 즉, 문화접촉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다.

이때 문화접촉이란 서로 다른 문화배경을 가진 집단과 집단이 만나게 되는 상황으로서, 지리적 이주, 물리적 이동이나 대면적 접촉 등의 직접 접촉과 문헌, 생활용품, 대중매체 등의 문화적 매체와 통신수단을 이용한 간접 접촉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문화접촉은 자신의 생활

공간 내에 다른 문화가 유입되어 새로운 문화를 만나게 되는 내향적 접촉과 생활공간 외부로 이동하여 다른 곳에서 새로운 문화를 접촉하는 외향적 접촉으로 나뉜다. 한국사회의 문화접촉은 해외방문, 통상 교류 확대 등으로 주로 외향적 접촉이 많았으며, 한국인의 다른 문화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추구하는 내향적 접촉은 많지 않았다(최명민 외, 2015).

문화변용은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두 사회가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서로가 갖고 있는 문화에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화변용은 어느 한 쪽 사회 또는 양쪽 모두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어느 한 집단에서 더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 경향이 강하다.

문화변용은 문화적 다원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며, 다문화사회를 기반으로 한다. 다문화사회에서 주류사회 또는 지배집단의 문화를 얼마나 수용하는지와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과 특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느냐에 따라 문화적응의 유형이 달라진다. 통합(integration)은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과 특성을 유지하면서 주류사회의 문화를 수용하는 유형이다. 동화(assimilation)는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주류사회의 문화에 흡수되는 유형이다. 분리(segregation)는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고집하고 주류사회의 문화를 수용하지 않는 적응유형이다. 주변화(marginalization)는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지도 못하고 주류사회의 문화를 수용하지도 못하는 문화적 적응 유형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적응유형은 단절적인 범주가 아니며 연속선상의 개념으로, 새로운 문화로 진입한 이주민들은 통합이라는 문화적응 유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문화변용에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개인은 긍정적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정체성, 통합성, 대처능력의 상실 등과 같은 부정적 영향

을 미치기도 한다. 특히 문화변용과정에서 문화충격이나 문화지체 현상을 경험할 경우 개인은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문화충격은 실질적인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극심한 문화적 갈등을 겪는 현상을 말한다. 문화지체는 기술 문명의 발전으로 인하여 물질적 요소들과 인간의 정신 사이에 격차가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문화적응은 문화변용을 경험한 사람이 특정 문화의 요구 사항을 배우고 그 문화에서 적절하거나 필요한 가치와 행동을 습득하여 새로운 문화에 익숙해지는 과정을 말한다. 심리적 문화적응은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 정신건강유지 그리고 새로운 문화에 대한 만족도 등의 심리 내적 적응을 말한다. 사회적 문화적응은 가족생활, 직장, 학교 등에서의 일상생활에 발생하는 문제를 처리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심리사회적 측면의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① 출신 사회의 특성, ② 정착한 사회의 특성, ③ 문화 변용의 경험한 집단의 변화, ④ 문화변용 이전의 조절변인, ⑤ 문화변용 과정에서의 조절변인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있다(최명민 외, 2015).

### 3) 민족중심적 단일문화주의와 문화상대주의

민족중심적 단일문화주의(ethnocentric monoculturalism)는 지배집단인 특정 민족의 문화가 소수집단의 문화에 비해 옳고 우월하며, 지배집단의 생활양식을 모든 다른 민족이나 문화에 강요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러한 민족중심적 단일문화주의는 사회성원의 정체감과 일체감, 자부심을 제고하고, 사회 내부의 결속력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잘못된 편견임에 틀림없다.

민족중심적 단일문화주의는 우월성의 신념, 다른 문화의 열등성에

대한 신념, 규범과 기준을 강요할 수 있는 권력, 사회제도를 통한 표현, 감주어진 가면이라는 5가지 요소로 구성된다(Sue, 2010). 민족중심적 단일문화주의에서는 특정 집단의 가치, 언어, 전통, 예술, 역사 등의 문화가 상대적으로 우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다른 사회나 문화는 덜 발달되고 미개하고 원시적이고 심지어는 병리적이라고까지 바라본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지배집단은 권력이 약한 집단에게 자신들의 규범과 신념, 생활양식, 문화를 강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민족중심적 가치와 신념을 사회정책, 조직, 제도 등을 통해 실제 적용하여 소수집단을 차별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보편성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민족중심적 단일문화주의 가치관과 신념을 교묘하게 감추고 있다고 본다.

민족중심적 단일문화주의에서는 다른 모든 민족 집단이 지배적 민족집단의 문화와 생활양식에 동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문화다원주의에 반대한다. 그리고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권력을 가진 지배적 민족집단은 특정 사회에서 다른 민족집단과 그들의 문화를 차별하고 배척하고 억압하며, 자신들의 문화를 지키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민족중심적 단일문화주의는 자신의 문화적 가치와 기준에 입각하여 다른 문화를 판단한다는 인종중심주의(ethnocentrism)와 유사한 개념이다. 하지만 민족중심적 단일문화주의는 다수집단이 소수집단을 억압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서로 다른 점이 있다(Sue and Sue, 2013).

민족중심적 단일문화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문화적 상대주의(cultural relativism)이다. 이는 사회의 문화적 행위와 가치는 그 문화의 맥락 속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관점으로, 모든 문화에는 우열이 없고, 나름대로의 합리성을 갖고 있으며, 존재할 가치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 특정 문화를 옳고 그르다든지, 좋고 나쁘다고 말할 수 없으며, 각

자의 문화는 그 사회의 문화적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하고 이해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문화적 상대주의는 문화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연구에 꼭 필요한 관점이다(이철우, 2017a).

#### 4) 문화동화주의

문화적 동화란 다양한 민족과 인종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고유한 문화를 포기하고 주류사회의 문화를 받아들여 주류사회에 정착하는 현상이다(Bennett, 2009). 문화동화모형(cultural assimilation model)에서는 한 사회 내에 존재하는 주류문화와 비주류문화 중에서 주류문화를 통한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문화동화모형에서는 국가와 사회의 정체성 통일과 이의 유지를 위해 소수자집단이나 소수문화를 가진 이주민들이 주류사회의 지배집단을 모방하거나 그들의 가치, 행동, 신념을 수용하여 주류문화와 가치관에 맞춰서 변화해 나갈 것을 기대하는 문화를 흡수 통합하는 방식의 용광로(melting pot) 모형을 지지한다.

이 이론에서는 이주민들은 주류사회 구성원과의 접촉, 경쟁, 화해, 동화 과정을 통하여, 자신들이 가진 특성, 관습, 종교, 문화 등을 상실하는 반면 일방적으로 주류집단이 보유한 문화를 습득함으로써 주류집단과 동일한 정체성을 갖게 되어 주류 사회에 정착하게 된다고 본다. 즉, 이주민이 주류사회 지배집단의 문화에 동화됨으로써 주류사회에 편입되고 문화적으로 융합되어, 이주민이 주류사회 지배집단이나 다수집단과 분리되지 않게 된다.

하지만 동화이론은 서로 다른 문화적 특수성을 온전한 하나의 문화로 융합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 완전한

문화적 동화는 존재할 수 없으며, 소수인종과 집단의 문화는 주류사회에서 차별과 배척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 6) 문화적 차별과 배제

문화적 차별-배제모형은 이주민의 노동시장 참여와 같은 특정 영역에의 참여는 허용하지만 사회복지제도나 시민권, 정치적 참여 등의 영역에 접근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주민에게는 일시적 체류 자격만 부여하여 이들을 사회통합의 대상에서 배제하고, 각종 권리도 인정하지 않는 모델이다. 다시 말해 특정 영역의 이주민에게 노동자, 납세자, 부모로서의 사회적 지위는 인정하지만, 국적을 가진 내국인이 누릴 수 있는 지위와 권리는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원하지 않는 이주민의 정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전략이다.

이러한 문화적 배제는 국적 유무와 같은 공식적 법률제도 하에서 뿐만 아니라 인종차별 등의 형태로 비공식적 차원에서 나타난다. 이주민들은 인종적 소수자집단이 되고, 완전한 사회참여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이주민 소수자집단은 사회경제적으로 불이익을 경험하고, 이주여성들은 성차별과 인종차별을 동시에 경험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화적 차별과 배제는 주로 특정 인종집단으로 구성된 국가에서 주로 발생하며, 역사적으로 외부의 침탈과 억압에 시달린 국가들이나 국경 분쟁을 겪는 국가들에서 주로 나타난다. 이들 국가들은 이주민들을 수용하기를 꺼려하며, 새로운 언어와 문화적 다양성이 자신의 문화를 위협할 것이라고 보고 민족적 순수성과 문화적 동질성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이들 사회는 제한적인 이민정책을 실시하고, 이주민들

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제한적인 이주민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7) 문화다원주의

문화다원주의(cultural pluralism)는 샐러드 볼 모형(salad bowl model)으로도 불리며, 민족마다 다른 다양한 문화나 언어를 단일의 문화나 언어로 동화시키지 않고 공존시켜 서로 승인·존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상을 말한다(<http://100.daum.net>). 문화다원주의는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문화적 집단들이 각각 문화적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문화와의 공통된 부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타협의 과정을 거쳐 사회를 통합하는데 중점을 두며, 각각의 문화를 지닌 개인 또한 존중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문화다원주의에서는 다원화된 사회의 민족 집단이 다른 집단의 언어, 종교 등의 문화적 전통이 사회적 조화와 생존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전체 사회에 맞게 따르기만 한다면,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문화다원주의는 문화동화주의를 배격하고, 인종이나 민족에 기반을 둔 차별을 배제하며, 지배집단이 소수집단의 문화를 말살하려는 강압적 문화이론에 반대한다. 간혹 문화다원주의가 민족집단의 정체성을 높이고 사회의 분리와 대립, 갈등을 일으키므로, 사회에 위험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으나, 이는 문화다원주의를 오해한 것이다. 문화다원주의는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집단들에 대해 그 동등함을 인정하고, 성숙한 존중을 특징으로 하는 이상적 모습을 갖추고 있다.

## 3. 사회변동과 발전에 대한 관점

현대사회의 문명 발달과 세계화로 인해 전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경향이 나타남에 따라, 모든 사회는 폐쇄적으로 고립되어서는 생존이나 발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사회성원들은 다양한 문화적 접촉 기회를 갖게 되었고,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보다 다양한 문화적 대안들을 갖게 되었으며 그들이 향유하는 문화적 내용도 풍요로워지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다양성의 증대 즉, 문화변용은 사회변동과 발전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이철우, 2017a).

사회체제는 직간접적으로 문화를 창출해내지만, 사회는 문화에 의해서 변동한다. 이처럼 사회와 문화는 상호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한 부분의 변화는 다른 부분의 변화를 일으킨다. 가치, 신념, 이념 그리고 사회제도와 같은 문화의 기본 요소들이 변화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전체 사회질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Wagoner et al., 2012). 문화 자체는 안정적이면서 동시에 변동적이며, 문화가 사회를 안정시키기도 하지만 변화시키는 힘을 갖고 있다. 문화는 사회변화의 방향과 속도를 제시하고, 사회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한계를 결정하기도 한다.

문화변용은 발명과 발견이라는 내적 요인과 다른 문화와의 접촉이라는 외적 요인이라는 두 가지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 다문화주의이론에서는 문화변용의 내적 요인보다는 외적 요인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다. 즉, 다문화주의이론에서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문화가 직간접적 교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접촉함으로써 어느 한 쪽 또는 양쪽 모두에서 변화가 일어나며, 이러한 문화적 변용이 사회변화를 일으킨다고 본다.

특히 다문화주의이론에서는 문화적 확산과 차용이 문화변동과 사회



변화를 유발하는 요인이라고 본다. 문화적 확산(diffusion)은 한 문화의 특징이 다른 문화집단으로 전파되는 것을 말한다. 문화적 차용(borrowing)은 특정한 문화적 특질을 갖지 못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다른 문화권의 문화적 특질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문화적 확산과 차용과정에서 특정 문화집단이 주류사회 또는 지배집단의 문화를 얼마나 수용하는지와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과 특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느냐에 따라, 문화변동의 속도와 방향 그리고 내용은 달라지고, 이에 따라 사회변화도 야기되게 된다.

문화변동의 유형은 문화적 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라는 네 가지로 분류되며, 문화변동의 유형에 따라 사회변화의 방향과 내용이 달라지게 된다. 특정 문화집단의 구성원이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과 특성을 유지하면서 주류사회의 문화를 수용하게 될 경우 문화적 통합이 일어나고, 새로운 문화를 가진 통합된 사회로 발전할 수 있게 된다. 특정 문화집단이 자신들의 문화는 버리고 주류사회의 문화에 함몰되게 될 경우, 주류사회의 가치, 신념, 제도, 생활양식이 그 사회를 지배하게 되고, 비주류사회의 특징들은 사라지게 되는 사회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반면에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고집하면서 주류사회나 다른 문화를 수용하기를 거부하게 되면, 사회는 안정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정체화 퇴보의 모습의 보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도 유지하지 못하고 다른 문화를 수용하지도 못하게 되면, 사회행동을 안내할 문화적 기준을 갖지 못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 4. 사회복지 정책과 실천에의 적용

### 1) 사회문제에 대한 관점

다문화주의 관점에 따르면 다양한 문화가 서로의 문화를 상호 존중하고 공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상적 모습과 현실 사회의 모습은 다를 수 있다. 현실 사회에서는 특정 문화를 차별, 배제, 억압하기도 하며, 자신의 문화를 다른 문화를 지닌 성원이 수용하고 받아들일 것을 강요하기도 하며, 다른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문화 간의 갈등이 야기되지만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질적 문화가 상호 무관심 속에서 병존하여 사회통합을 해칠 수도 있다. 또한 문화충격과 문화지체 현상을 경험함으로써 문화적응에 실패하여,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만들기도 한다. 더 나아가 인종, 민족, 성별 및 성적 지향성, 연령, 계층 등의 소수자집단에 대한 차별과 억압이 문화적 차별과 억압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어, 이중 또는 삼중의 사회적 차별을 경험하기도 한다.

다문화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는 근본적으로 국적 취득의 비합리적 요소와 이에 따른 인권침해의 문제에 기인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주민의 겨우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데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고, 국적 취득과정에서의 비합리적 요인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국적 취득의 지연으로 인하여 기본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인권 침해와 유린에 노출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다문화주의 사회의 사회문제는 문화적 부적응에 원인이 있다. 우리 사회로 이주한 외국인들의 경우 언어적 소통능력의 제한과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폐쇄적 문화와 사회관계망 등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경험한다. 또한, 민족우월주의와 지역사회의 문화적 대응능력의 미비로 인해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 태도와 억압적 행위를

통해 다양한 피해를 경험하기도 한다.

다문화사회의 사회문제는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에도 원인이 있다. 일반적으로 다문화사회에서는 이주민들에게 노동시장 참여 등 제한된 범위의 사회참여만을 허용하고,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영역에의 참여는 제약을 받는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대부분은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저임금 근로에 종사함으로써, 경제적 빈곤, 산업 재해, 비인격적 처우 등의 다양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다문화주의는 개인의 자기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다문화주의의 기본 원칙과는 반대로 민족 및 문화적 공동체간에 장벽이 강화될 경우, 개인을 특정 문화집단에 귀속시켜 그에 맞춰 정체감을 형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류사회의 지배적 문화집단에 속하지 못하고 비주류 소수자집단의 문화에 속해 있는 개인은 자신이 속한 문화집단의 가치, 신념, 상징 등을 포기하고, 이민족 문화의 이미지에 맞는 자기정체감 형성을 강요받게 된다. 이럴 경우 비주류 소수자집단의 문화를 가진 개인은 자신의 뿌리를 상실하게 되고, 민족적 고유문화를 왜곡 또는 부정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됨으로써, 정체성 혼란과 사회적 고립을 경험할 위험성이 있다.

다문화사회의 이주민들이 경험하는 문제는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의 문제이다. 우리 사회에는 외국인과 외국 문화에 대한 이중적 시각과 서열화 경향이 엄존하여 인종과 문화에 따라 차별, 홀대, 배제, 억압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인의 외국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과 왜곡된 이해 또는 몰이해, 한국문화에 대한 외국인의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하여 다양한 문화적 갈등이 야기되고 있어, 이주민들은 사회적 고립이나 배제를 경험하고 한국 사회의 성원으로 통합되는데 어려

움을 경험하기도 한다.

## 2) 사회복지 정책과 실천에 대한 합의

다문화사회복지실천은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고 원조관계에서 작용하는 문화적 요소를 인식하는 사회복지실천이다(최명민 외, 2015). 다문화사회복지실천의 주요 대상은 민족적 정체성과 문화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로 인해 차별을 경험하는 사람과 그 가족 및 그들이 생활하는 지역사회이며, 이들의 심리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사회복지실천을 안내하는 가치체계로는 다양성, 형평성, 조화, 동등한 인권, 사회참여, 문화 이해와 학습, 관용과 수용 및 존중, 협력, 고유 문화의 인정과 공유, 문화통합, 문화적 장애의 극복 지원 등이다(Gingrich, P.(2005). 그리고 다문화사회복지실천의 목표로는 건강한 사회구조의 정립, 다양한 문화집단간의 상호작용과 협력, 사회적 결속과 통합 촉진, 문화적 융합의 촉진, 동화가 아닌 더 큰 문화로의 화학적 결합, 인종집단간의 갈등예방과 조정, 시민의 문화의식의 제고, 문화적 편견과 차별 및 억압의 제거, 문화적 갈등과 대치의 해결 등이다(Gingrich, P.(2005)..

다문화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따라야 할 실천원칙은 다음과 같다(Castles, 1995).

- ①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동등한 시민으로서의 공식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② 공식적 지위와 권리의 인정이 사회적 존중, 기회 또는 복지에서의 평등한 처우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문화

집단간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문화에 걸맞는 처우를 설계해야 한다.

- ③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된 소수문화 집단에게 자신의 권리와 의견을 대표하고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해야 한다.
- ④ 문화적 특성, 욕구 및 결핍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⑤ 문화, 성별과 성적 지향, 연령, 장애, 지역, 종교 등의 차이에 따른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서의 모든 차별을 제거하고, 동등한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을 해야 한다.

이러한 다문화사회복지실천의 가치, 대상, 목표, 원칙에 입각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정책 및 실천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사회의 다문화정책은 외국인근로자 정책, 다문화 가족정책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정책이 대표적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원 대책은 출입국관리법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추진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으로는 문화다양성 교육 프로그램, 인로적 외국인 의료서비스, 비전문 인력의 숙련 기능 인력으로의 발전 지원을 위한 직업능력 개발훈련,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사업, 한국사회의 기초질서 교육과 홍보, 취업기간 만료 외국인근로자의 자진귀국 유도사업,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특례제도 등이 있다. 하지만 사업장이동의 자유보장, 사업장 선택의 자유보장, 불법체류 제도의 개선,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방안의 강화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박용순 외, 2019).

결혼이민자를 위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기반하여 추진되고 있다. 결혼이민자의 정착지원사업으로는 다문화강사

양성, 의사소통 지원 및 생활정보 제공, 상담서비스, 결혼이민자 네트워크 형성, 취업지원, 기초생활 보장 및 긴급지원 등이 있다. 취학전 자녀 양육 지원사업으로는 임신과 출산 및 아동양육 지원 서비스, 언어 및 교육지원, 기본학습 및 유치원 생활적응지원사업이 있으며, 아동 및 청소년자녀 교육지원사업으로는 이중언어교육, 학교생활지원, 학부모 상담, 학교부적응 학생 교육기회 확대 등의 사회적응 지원사업 등이 있다. 국제결혼 피해예방 사업으로는 중개업자 교육, 남성 배우자 교육, 결혼이민자 교육, 혼인의 진정성 검증 강화, 위장결혼 적발,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구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다문화가족정책의 방향을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전환하고, 다문화 서비스의 인프라 확장과 촘촘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 인력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최명민 외, 201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지원대책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책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으로는 정착금 지원, 주거알선 및 주거지원금, 직업훈련 및 고용지원금 등의 취업지원, 생계 및 의료급여 등의 사회복지지원, 교육지원사업, 신변보호 등의 보호사업, 의료비감면, 창업지원, 법률지원, 종합상담 등으로 다양하다. 하지만 앞으로 공공부조에 의한 구호방식에서 벗어나 북한이탈주민의 적극적 참여와 소통을 통한 자활지원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박용순 외, 2019).

이와 같은 다문화정책과 함께 다문화적 관점에 기반을 둔 가족상담과 치료, 집단상담과 치료, 대상 및 영역별 다문화사회복지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다문화사회복지실천에 관여하는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전문인력들의 문화적 역량의 한계로 인하여 다소간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사회복지실천의 질적 수준을 제고해 나가

기 위해서는 인간과 문화에 대한 자신의 가치와 편견 이해, 문화적 다양성을 가진 내담자의 세계관 이해하기, 문화적 특성에 적합한 개입전략과 기술 개발하기, 문화적 역량을 고취 또는 방해하는 조직적 제도적 권력에 대해 이해하기 위한 노력 등을 통하여 사회복지사 자신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Sue, 2010).

### 생각해 보아야 할 과제

1. 우리 사회의 외국인 근로자들의 현실과 그들이 경험하는 문제를 탐색해 보시오.
2. 결혼이주여성들이 다문화가족에서 경험하는 문화적응 및 일상생활상의 문제를 탐색해 보시오.
3.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아동 및 청소년 자녀가 겪는 생활문제를 탐색해 보시오.
4.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적응과정과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문제에 대해 탐색해 보시오.
5.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들이 경험하는 인권침해 사례를 수집하여 분석해보고, 권리침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오.
6. 미국, 캐나다,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등 외국의 다문화 정책을 검토

하고, 우리 사회의 다문화정책에 대한 함의를 도출해 보시오.

7.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성별 및 성적 지향성, 연령, 지역, 종교, 계층, 장애여부 등에 따른 소수자집단 문화에 대한 차별 현상을 탐색해 보시오.
8. 우리 사회의 다문화정책의 현상과 문제점을 고찰해보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시오.
9. 우리 문화에 내재된 고유의 사회복지실천 방법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탐색해 보시오.
10. 예비사회복지사 자신이 어떤 문화적 가치와 편견을 갖고 있는지 내적으로 성찰해보고, 전문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 문화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모색해 보시오.